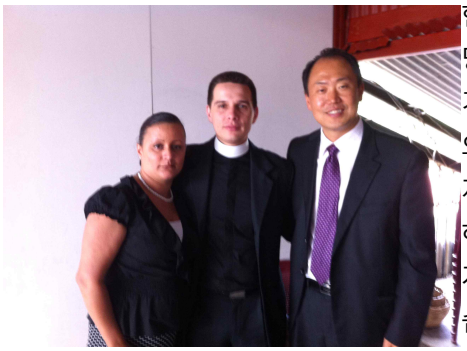
한국의 산들은 단풍으로 아주 곱게 아름답게 물들어 있겠지요. 이곳에서 한국의 단풍을 볼 수 없지만 그대도 단풍에 물든 것처럼 예쁜 붉고 노란 잎사귀를 가진 나무들이 있어 그 나무들을 보면서 한국의 10월을 생각해 봅니다.

10월 기도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읽고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Iglesia Generación de Poder y Santidad 교회와의 만남

9월부터 새롭게 설교를 하러 가는 교회가 한 곳 더 늘었습니다. 내년까지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가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교회 이름은 Iglesia Generación de Poder y Santidad (이글레시아 헤네라시온 데 포데르 이 산티닷)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능력과 거룩한 세대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에 어울리게 교회를 담당하는 마이콜 라미레스(Maikol Ramírez )목사님은 자기가 자란 지역에서 교회 개척한지 3년 된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입니다. 어렸을 때 방황의 시간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기도하던 중 자기가 자란 곳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개척하여 지금까지 교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도로 옆 버려진 창고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한 곳을 부부와 가족들이 청소하고 새롭게 수리하고 페인트칠을 새로 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손볼 곳이 많이 있지만 재정이 채워지는 데로 계속해서 수리하고 공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11월 셋째주에 있을 창립 3주년 예배를 위해서 강대상과 강대상 벽을 공사 중입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직접 재료를 사다가 공사를 하고 있으며, 또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예배 후 간단한 먹거리를 팔기도 하고 (제가 두번째로 간 주일에는 삶은 옥수수를 팔았습니다.),마이콜 목사님은 자기가 갖고 있던 드럼 셋트를 이웃 교회에 팔아 그 돈으로 수리할 재료들을 사와 교회건물을 계속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도로 옆 작은 창고를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기에 아직까지 특별히 교회 입구문(?)이 없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예배하기에 예배 중간에 버스,자동차,오토바이 등이 지나가면서 내는 소리가 설교소리보다 더 크게 교회에 울릴 때도 있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일도 조금은 어색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사실 교인들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기 참 힘든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려는 목사님과 교인들을 보고 있으면 설교하러간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옵니다. 두 번째 간 주일에는 마이콜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와 설



교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작고 이제 개척한지 얼마 안 된 교회지만, 그리고 아직은 초보 목사님이지만 환경을 뛰어 넘어 예배 속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귀한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중에 오다가다가 예배를 목격한 동네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교회에 교인이 되어 함께 예배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기도해주세요.

2. 종교개혁주일 연합예배.

10월26일 토요일에 저녁에 종교개혁 기념 연합 예배가 코스타리카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종교 개혁의 정신을 가진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 교단 교회들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중남미의 상황을 많이 다릅니다. 여러 교파의 교회들이 있지만 개혁주의 정신(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지키려는 교회들은 정말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종교개혁 주의 정신을 간직하며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들이 작지만 코스타리카에 있습니다. 그 중 8개의 교회가 모여 종교개혁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8교회가 모였지만 전체 참석인원은 100여명 조금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시작하여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살자는 내용의 설교를 들으며 코스타리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남미에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과 정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러 이곳에 온 저와 최강월선교사가 그 사역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코스타리카에서 김기돈,최강월(성실,성은)선교사 올림